전남 크루즈관광객 급증

F1·여수박람회 관심 높아 올 3,500여명 찾을듯

전남 지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는 15일 일본 국적 국제크루즈선인 닛폰마루호가 오는 3월31일과, 4월 1일 목포 신항과 광양항에 한 차례 기항하는 것을 비롯, 미국 국적 씨번프라이드호(1만t)가 목포와 여수를 각각 4차례씩 기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씨번크루즈의 담당 여행사 측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남지역을 방문, 무안 백련지·진도 소포리·강진 백련사·여수 수산시장 등 도내 9개 주요 관광코스를 답사할 계획이다. 닛폰마루측도 지난해 전남 주요 지역을 둘러봤다.

국제크루즈선이 전남에 기항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고작 8차례에 불과했지만 최근 F1 국제자동차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으로 전남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루즈 관광도 급증, 올해만 모두 9차례의 크루즈 관광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

닛폰마루는 2만2천t급으로 최대 승선 인원이 승무원(150명)을 포함해 500명이며, 씨번프라이드는 관광객 208명을 한꺼번에 실어나를 수 있는 1만t급 호화크루즈선으로 수영장과 극장, 연회장, 쇼핑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크루즈선을 통해 올 한해 전남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3천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도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대회를 앞두고 초호화 국제크루즈선을 목포 신항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크루즈선사들의 전남 지역 정기 기항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경우 도내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시기에 맞춰 도립국악단의 환영 공연을 개최하고 지역에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주요 관광 코스와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춤추는 추기경' 평신도로 이뤄진 국제가톨릭단체인 아피(AFI-Associ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e) 또는 '국제가톨릭형제회'라 불리는 단체에 따르면, 고 김수환 추기경은 1969년 서울대교구장이 된 이후 2007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월 1일을 명동성당 뒤편에 있는 아피의 근거지 '전진상(全眞常) 교육원'에서 보냈다고 한다. 사진은 한 신년하례식 후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과 아피회원들. /연합뉴스

농·산업인턴 65명 道, 이달말까지 선정

전남도는 15일 경제한파로 취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실업자와 미취업자 중 농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해 2월말까지 농·산업 인턴 65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농·산업 인턴은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인력들이 선도농가의 농업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실습 등을 거쳐 영농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농·산업 인턴으로 선정되면 관심있는 품목의 선도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서 실습을 통해 영농 재배기술을 습득한 뒤 영농 정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외국인 증가율 1위

지난해 2만1천149명 … 전년보다 7.4% ↑

전남지역의 외국인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등록 인구는 87만636명으로 10년 전인 1999년의 20만6천895명보다 66만3천741명이 증가했다. 불과 10년 만에 외국인 체류자가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외국인 체류자는 1997년 20만명을 넘어선 뒤 1998년 18만2천명, 1999년 20만6천명, 2000년 24만4천명, 2001년 26만7천명, 2002년 28만7천명, 2003년 43만7천명, 2004년 46만9천명, 2005년 48만5천명, 2006년 63만2천명, 2007년 76만5천명, 2008년 85만4천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만2천188명, 전남은 2만1천149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26만6천808명)였고 서울(25만5천749명), 경상남도(5만3천222명), 인천(4만7천852명), 충남(3만7천667명), 경북(3만5천350명), 부산(3만1천310명) 순이었다.

외국인 체류자 증가율로 보면 전남(2만1천149명)이 2008년에 비해 7.4%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도(7.1%), 충남(6.8%), 전북(6.2%)이 뒤를 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120 빛고을콜센터' 10개월만에 10만건 돌파

광주시는 15일 "지난해 4월 개소한 광주시 '120 빛고을콜센터'가 10개월만에 10만콜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현재 '120 빛고을콜센터' 상담건수는 10만589건을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상담처리 건수는 개소 후 688건으로 2.3배 늘었다.

상담 내용은 여권 문의가 18%로 가장 많았고, 버스노선 11.5%, 건설교통 9.2%, 시정 일반 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67%인 6만6천건을 1차 상담에서 완료해 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업무추진비·급양비·여비 등 자진 삭감

광주시 140억 '일자리 창출'

광주시가 업무추진비나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40억원을 절감해 이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련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시장을 비롯한 간부의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급양비나 여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10% 자진 삭감하고, 이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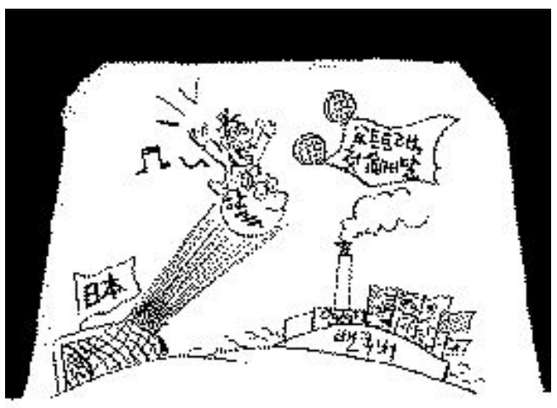
광주시는 간부직원의 업무추진비를 행정안전부가 예산 편성시 총액기준경비로 이미 5%를 삭감했으며, 이번 조치로 10%를 추가로 줄였다. 지난해에 비해 모두 15%가 절감되는 셈이다.

또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예산 10% 절감분인 30억원은 청년실업자 등의 일자리 제공에, 나머지 110억원은 서민금융지원 확대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에 각각 투입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덕분에 명절기분이 조금 나긴 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 비용 감소

24일부터 기능·도로주행 8개 항목 폐지

운전면허시험이 오는 24일부터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따도록 간소화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은 시험장에서는 현행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전문학원은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만2천원을 내고 3시간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에 1시간짜리 무료 시청각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것과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개 항목이 폐지되고, 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주차는 전면주차로 바뀐다. 도로주행시험은 35개 항목에서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졌지만 보행자 보호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 4개 항목을 위반하면 실격되도록 바뀌었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연습 5시간을 받고 3일이 지나고서 응시해야 했지만, 도로주행연습 없이 3일만 기다리면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전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5대시책 추진

①시·군 주력 인증기관 협약제
②잔류농약 검사지원
③생산이력등록제
④소비자 안심보험
⑤농산물 명예 감시원제 운영

전남도가 세계 최고의 친환경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 농업 육성에 나섰다.

전남도는 15일 '친환경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소비자 신뢰확보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군 주력 인증기관 협약제 ▲잔류농약 검사지원 ▲생산이력등록제 ▲소비자 안심보험 ▲친환경농산물 명예 감시원제 운영 등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5대 시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군 주력 인증기관 협약제의 경우 시·군 당 1~3개 전문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인증과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인증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1억5천만원을 들여 학교급식 등에 공급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출하 전 검사를 실시, 합격품에 한해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생산이력등록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 생산과 유통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1천여농가를 대상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140명)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활동도 전개한다.

전남도는 5대 시책을 추진하면서 농약 사용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앞으로 3년간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3.02.(화) ~ 2010.03.14.(일) / (총 60시간 강의)
-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시옥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포함), 자산운용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졸업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 이명규교 수 062-670-2421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태양광발전소
부지구함
위 치 : 제한없음
용 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 재생에너지 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 확인 된곳.
(주) 땅심부동산 컨설팅
TEL.010-3616-8698

전통주 제조 연수생 모집
우리 전통주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막걸리, 약주, 증류주 과일주, 리큐류, 기타주
모집기간
조선대학교 : 2월 19일
호남대학교 : 2월 28일
수업기간
2010년 3월 일 ~ 6월 일
(4개월 15주)
문의전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062) 230-7700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062) 370-8211
강사 : 010-4568-0700

(계좌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 요리학원
방문상담 대 환영 합니다!
◎개 강 2월 1일 ◎

훈련 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계좌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재직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계좌제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
226-5500
위진요리학원 학원가 (구)MBC 장동로터리 전남여고 광주전화국